

2014년 5월 12일 월요일.

08:53AM

지금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. 생각해보니 새로운 주의 첫 출근길은 늘 조용하다. 유독 오늘이 더 그런 것 같다. 모두 자거나 명때리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. 내 옆에 서서 가는 여자분만이 무언가 종이 같은 것을 들고 읽고 있다. 사실 예전에는 나도 어딘가를 오고 가는 교통수단에서 늘 책을 읽곤 했다.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독서가 얼마나 더 꿀재미인지. 근데 지난해부터 모니터 세개를 하루종일 보는 일을 시작하고나니 자투리 시간에는 눈의 피로를 더하는 일을 피하게 됐다. 그런데 모순적으로도 그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일이 훨씬 많아졌다. 연락을 끊을 수도 없고 나 원 참. 지금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, 오늘의 하루를 저장했다가 돌려 준다 길래 아침부터 일기를 쓰고 있다. 일상을 기록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나에게 1년 후 이 일기가 깜짝 선물이 될지도 모르니까.

10:51PM

오늘은 야근을 하고 좀 늦게 퇴근 했다. 원래 오늘 계획은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밀린 강의를 모두 듣는 것 이었다. 그런데 야근하면서 부장님과 팀장님 모르게 언니와 막걸리를 마셨더니 잠이 와서 원 밀린 강의는 오늘 다 듣긴 힘들 것 같다. 그래도 교육을 신청해서 강의도 듣고 바쁘게 사니까 재밌는 일을 덜 찾게 됐다. 취직하면서 여유가 생겼지만 자유시간에 무언가 늘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었다. 취직과 함께 귀차니즘이라는 몹쓸 병을 얻어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벗어난 것 같아 기쁘다. 역시 나는 바쁘게 살아야 하는 인간인가보다. 바쁘게 살아야 힘이 생긴다. 그래야 또 휴가를 가면 그 시간이 더 달콤하기도 하고. 상반기에 8일정도의 휴가를 썼는데 아직 10일이나 남았다. 그 휴가를 어디에 쓰게 될지 궁금하다. 사실 또 여행을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제는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 지경이다. 돈을 좀 모아야 할 것 같다. 어제도 카드명세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다..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외식에 가장 카드값이 많이 나간 걸 보고 다이어트를 하리라 결심했다. 어쩐지 살이 찌더라니. 사람들 만나면 맨날 먹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 그렇다.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많이 만날수록 많이 먹고 돈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이다. 돈이 있어야 사람들도 만난다. 좌우지간 나는 정말, 금전적으로도, 외모적으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. 아, 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. 난 어제 오랜만에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.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느낌을 받으니 행복했다. 얼굴과 행동, 표정은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웃음소리로 느낄 수 있었다. 우리는 어떤 인연이길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런 감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. 혹여 나중에 상처가 될까 깊은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. 또 이놈의 인연 타령이지만 어쩔 수 없다.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보겠지. 자기가 했던 말처럼, 나를 찾아 오겠지. 이 일기를 다시 볼 1년 후, 그 때가 오기 전에 이 사람을 또 보게 될까?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? 1년 후 이맘때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다. 이 사람도 양반은 못되나 보다. 그의 얘기를 쓰고 있자니 어김없이 연락이 오네. 이럴 때가 아닌데. 더 즐리기 전에 밀린 강의나 들어야겠다.